

와이파이 개선 요구 정보처 의견 수렴 중

홍지민 기자 jimin4249@khu.ac.kr

와이파이 환경 불안정성에 대한 학생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정보처는 지난 10일부터 무선랜 서비스 의견 접수와 검토를 시작했다.

우리학교는 교내 구성원이 인포 21의 ID/Password를 통해 인증 후 캠퍼스 무선 네트워크 서비스인 'KHU WIFI'를 이용하도록 한다. 사용자가 교내에 들어와서 무선 AP를 통해 KHU WIFI의 신호를 잡으면 인증 서버를 통해 교내 구성원인지 확인하고 DHCP 서버가 IP를 할당해 인터넷을 사용하게 하는 구조이다. 캠퍼스별로 약 1,000여

개의 무선 AP가 있으며 무선 컨트롤러라는 장비가 KHU-WIFI 라는 하나의 서비스명(SSID)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묶어주고 있다. 이를 통해 사용자는 교내 다른 건물로 이동하더라도 재접속 과정 없이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최근 들어 와이파이 환경이 안정적이지 않다는 학내 구성원의 불만이 이어지고 있다. 학생들이 무선랜 서비스와 관련해 불편을 겪고 있는 것은 ▲무선랜 신호 잡히지 않음 ▲무선랜 신호 끊김 ▲무선랜 신호가 약하거나 속도가 느림 ▲노트북을 이용한 수업 혹은 시험 시 불편 등이 있다.

정승연 (문화엔터테인먼트학 2020) 씨는 “대형 강의의 경우 보통 교수님께서 ‘전자인증출결시스템’을 통해 출결을 확인하시는데, 이때 와이파이 노트북에 잘 연결되지 않아 출결 번호를 입력하는데 불편을 겪은 적이 많다”며 “수업 중 인터넷을 이용하여 검색을 하거나 강의 자료를 다운받을 때에도 와이파이 노트북이 자주 끊기거나, ‘WiFi Guide’ 혹은 청운관의 와이파이 등 다른 와이파이에서 접속이 돼 집중의 흐름 또한 끊길 때가 있다”고 불편을 호소했다.

정보처가 분석한 무선랜 불안정성 원인으로는 DHCP용 IP 부족 현상이 제시된다. 이는 무선랜 접속 단말기의 급증으로 발생하는 현상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올해 정보처는 무선랜 접속 시 자동 할당하는 IP 수를 캠퍼스별 2만 개에서 4만 개로 두 배 가량 증설한 바 있다.



정보처가 무선랜 서비스 의견 접수를 시작했다. (사진=대학주보 DB)

그러나 계속되는 무선랜 환경 개선 요구로 양캠퍼스 정보처는 무선랜 서비스 개선을 위한 의견 수렴을 진행하고 있다. 정보처는 구성원들의 서비스 만족도 결과와 학생대표단과의 소통 시간에 언급된 불만 사항과 관련해 구체적인 문제점을 파악하고자 의견 접수를 진행하게 되었음을 밝혔다.

이번 의견 접수를 통해 정보처는 장단기 정책 수립과 개선 작업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정보처는 “의견 취합 후 현장 점검부터 시행

하게 되는데 2020년과 2022년 무선랜 개선의견 접수 및 개선 공사 시행 경험에 따르면 대부분의 의견은 현장점검 과정에서 조치가 된다”며 “신호 세기 조정, 신호 중첩 문제 해결, AP 위치 조정, 단말기 문제 등은 현장 점검을 통해 조치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어 정보처는 “공사가 필요한 부분은 모아서 공사 방안 검토 및 기안 상신, 결재 완료 후에 공사가 진행되고 빠르면 7-8월, 늦으면 9-11월 중 시행 완료될 것”이며 “사용자 밀집도가 높은 공간은 밀집 환경에서 좋은 성능을 발휘하는 최신 AP로 교체하고 음영 지역이나 신호가 약한 공간은 AP를 신규 증설하는 방법으로 진행할 예정”이라며 개선 방향성을 밝혔다.

한편 무선랜 서비스 관련 의견 접수는 오는 31일까지 구글폼을 통해 진행된다.

배구팀과 농구팀 승승장구

정다연 기자 ekdusgood@khu.ac.kr

우리학교 배구부와 농구부가 2연승과 3연승을 달성하며 기세를 이어가고 있다.

배구부는 지난 17일 성균관대 체육관에서 열린 'KUSF U-리그(U-리그)' 성균관대와의 경기에서 세트스코어 3-2(18-25, 27-25, 25-20, 22-25, 15-13)로 짜릿한 역전승을 거뒀다. 지난 10일 휴경기에서 이어 이번 시즌 두 번째 승리다.

이날 4세트까지 양 팀의 치열한 공방이 이어졌다. 1세트와 4세트는 성균관대가, 2세트와 3세트는 우리 학교가 승기를 잡았다. 마지막 5세트는 우리학교의 아슬아슬한 승리로 경기를 마쳤다.

1세트 초반 1-5에서 계속되는 상대의 득점으로 2-9까지 격차가 벌어졌다. 이후 이정민(스포츠지도학 2022)과 박예찬(스포츠지도학 2021), 마윤서(스포츠지도학 2022)의 잇따른 득점에도 초반 점수차를 극복하지 못하며 1세트를 내줬다.

2세트는 1세트의 흐름을 깨뜨렸다. 이정민의 연속득점으로 분위기를 가져온 우리학교는 경기를 주도하며 7-2까지 격차를 벌였다.



우리학교 농구부가 3연승을 달성했다.

(사진=경희대 농구부 제공)

그러나 연속된 범실로 18-18 동점을 내주며 추격을 허용했다. 이후 점수를 주고받는 시소게임 양상 끝에 이어진 듀스 상황에서 박예찬이 찬스볼에서 백어택으로 득점해 2세트를 따냈다.

3세트 초반, 5-5 동점 상황에서 잇따른 범실로 초반 흐름을 뺏겼던 우리학교는 이후 박예찬의 서브로 뒤쳐진 분위기를 전환했다. 12-8까지 격차를 벌린 우리학교는 연이은 득점으로 20-16으로 20점 고지를 선점했다. 이후 박예찬이 파이프 공격이 성공하면서 3세트를 가져왔다.

4세트 역시 초반 3-0 리드로 분위기를 이어오는 듯했으나, 연이

은 범실로 역전을 허용했다. 이후 7-11, 15-17, 18-21로 격차는 3점까지 벌어졌다. 결국 우리학교는 성균관대의 세트 포인트에서 속공을 막지 못하고 4세트를 내줬다.

마지막 5세트에선 치열한 공수 속에 김준섭(스포츠지도학 2023)의 서브가 상대의 리시브를 흔들며 우리학교는 10-7로 리드했다. 그러나 곧바로 연이은 범실로 성균관대의 추격을 허용했다. 양 팀의 접전이 이어진 가운데 우리학교가 매치포인트에 먼저 도달했다. 이후 마윤서가 상대의 대각 공격으로 찬스볼을 가져오고 박예찬이 상대 블로커를 뚫으면서 5세트 승리를 가져왔다. 이로써 우리학

교는 U-리그 상승세를 이어가게 됐다.

배구와 더불어 농구 역시 연승 가도를 달렸다. 지난 24일 치러진 한양대와 경기에서 60-48으로 승리해 3연승을 달성했다. 지난 3일 단국대와 65-57 승리를 시작으로, 9일 조선대와의 경기에선 96-58로 38점 차 압승을 거뒀다. 3연승 끝에 우리학교는 5승 5패를 기록하며 농구 U-리그 5위에 올랐다.

우리학교 배구부와 농구부가 호조를 발판 삼아 U-리그에서 연이은 승전보를 전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배구부는 오늘 흥익대와 휴경기를, 농구부는 오는 29일 연세대와 원정경기를 치룬다.

2023년 학사일정 변경

이지수 기자 ssu1404@khu.ac.kr

2023학년도 학사일정이 변경됐다. 오는 29일 월요일이 '석가탄신일'의 대체공휴일로 지정되면서다.

29일 대체공휴일 지정으로 이날 예정돼 있던 학사일정이 대거 변동됐다. 졸업능력인증 신청은 ▲5월 30일(화)~6월 2일(금), 기초교과 대학영어 이수면제 신청은 ▲5월 30일(화)~6월 5일(월), 교원자격무시험검정 신청(후기)은 ▲5월 30일(화)~6월 7일(수), 사회봉사학점 인정 신청은 ▲5월 30일(화)~6월 9일(금)으로 하루 지연돼 실시된다.

다음 학기 일정도 함께 변동된다. 당초 7월 13일(목)~19일(수)로 공지됐던 2학기 수강희망과목담기는 나흘 뒤인 7월 17일(월)~21일(금)로 변경된다. 수강학점철회 신청은 기존 9월 11일(월)~9월 14일(목)에서 ▲9월 25일(월)~10월 2일(월)로 변경됐으며, 2023학년도 전기 예비졸업사정 신청은 ▲10월 6일(금)~13일(금)에 실시된다.

2024학년도 1학기 수강희망과목담기 일정도 ▲2024년 1월 15일(월)~19일(금)로 변동된다.

한편 상기 일정은 추후 변동될 수 있다.